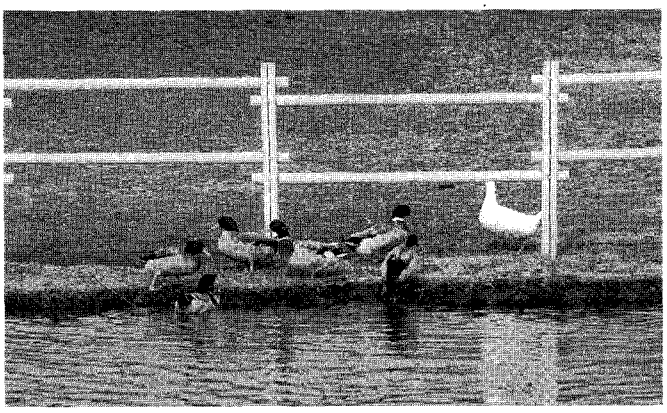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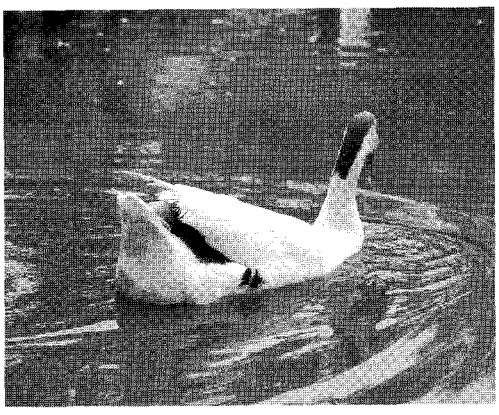
출처 | http://www.thepoultrysite.com
Monday, June 01, 2009
Ducks, Water and Distorted Science

오리와 물, 그리고 과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동물 행동학 전공의 마리안(Marian)교수는 최근 오리의 복지에 관한 연구논문을 냈다. 실험을 총괄한 마리안 교수는 "이번 연구는 우리가 진심으로 산업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길 원한다면 좋은 복지가 무엇인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 환경, 농가의 번영과 함께 생각해야할 문제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리야 말로 산업 동물의 복지가 인간 건강, 환경, 농가 모두를 어떤 방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이 예이다."고 설명했다. 또, 그녀는 "현재 영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오리 중 180만 수의 오리들이 대규모로 사육되고 있으며, 이 오리들은 도축 출하 시기인 9주령 까지 일부 오리들은 축사 내 마련된 물통에 머리를 담글 수 있지만, 대부분 오리들이 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니플식의 급수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전하였다.

마리안 교수에 따르면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오리 사육업자들은 오리들에게 수영물을 제공하고 싶어 하지만, 이것은 복지 및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오리들이 연못에다 배변을 하게 되면 깨끗한 물이 오히려 식중독을 일으키는 캄필로박터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오리들이 이 물을 마실 수 있고, 바닥에 물이 사육사를 오히려 더럽힐 수도 있으며, 사육사를 계속적으로 청소하는데 다량이 물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데 생태학적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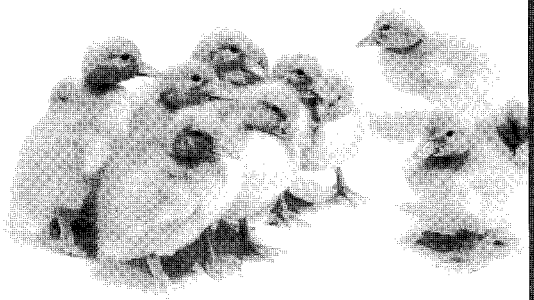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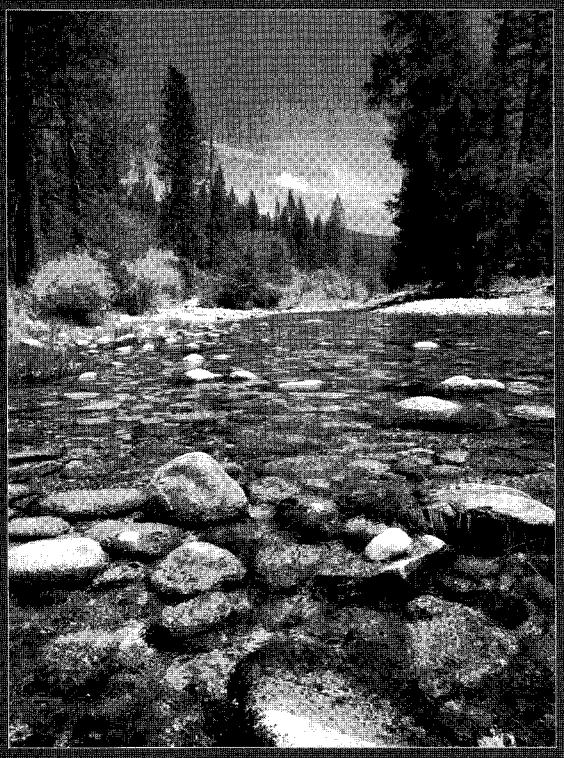
"오리 사육농가와 소매업자들은 오리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싶어하지만 방법을 모른다. 좋은 복지의 기본은 바로 건강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복지'를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다치지 않는, '건강' 그 이상의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동물의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말하면 오리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이번 연구를 오리 사육농가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환경의 오염 및 오리들의 기호에 맞는 방법을 찾는데 주력하였다"고 전하면서 "우리는 더욱 위생적이고 물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오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만 했다. 이를 위하여 연구팀은 호스를 이용하여 샤워기처럼 물을 뿌려주는 방법을 시도하면서 물통과 작은 연못이 있는 환경도 같이 제공하여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해온 것처럼 연못을 가장 좋아하는지 오리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고 실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오리를 위한 진정한 복지를 위해 오리의 선호도를 실험한 이번 실험의 결과는 예상 밖으로 나왔다. 오리들은 연못에서 수영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호스 아래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으며, 건강도 더욱 좋아진 것이었다. 샤워 호스가 사람과 오리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밝혀졌다.

그녀가 3년간 오리 복지 및 행동을 연구하면서 가장 바란 것은 실질적으로 오리 복지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자 한 것이다. 그녀의 바람대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복지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여.울.

– 詩人 김종길 –

여울을 건넌다

풀잎에 아침이 켜드는
개학날 오르막길.

여울물 한 번
몸에 닿아보지도 못한
여름을 보내고

모래밭처럼 찌던
시가를 벗어나,

질경꽃빛 구월의 기류를 건너면,

은피라미떼
은피라미떼처럼 반짝이는
아침 풀벌레 소리